

그라운드 떠나는 '국민타자' 이승엽

10월 3일 은퇴투어 마치는 라이언킹...그대 앞엔 꽃길만

'국민타자 이승엽의 23년'을 말한다

8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꽃>

국민타자 이승엽(41)이 마침내 은퇴한다. 1995년 삼성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뒤로 23년이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숱한 불멸의 대기록과 영광의 기억이 함께했다. 한 시절을 주름잡던 대스타들을 보며 그가 성공을 꿈 꾸곤 것처럼, 지금은 '미래의 이승엽'을 머릿속에 그리는 선수들이 넘쳐난다. 40년을 바라보는 KBO리그, 100년을 훌쩍 넘긴 한국야구에서 그 누구보다 위대한 타자였기 때문이다. 스포츠동아는 21세기 한국야구의 최고 스타로 기억될 이승엽의 발걸음을 매주 주말판을 통해 되돌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마지막 홈경기 넥센전, 23년 선수생활 마감 지도자·해설가 등 예상 속 골프선수 추천도 신중한 진로 고민...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어떤 일을 하든지, 야구 외의 길 생각 안해"

이제 끝이다. 10월 3일이면 이승엽의 영광스러운 23년도 막을 내린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릴 넥센-삼성전이 그의 마지막 경기다. KBO리그 최초의 은퇴투어를 통해 팬들과 성대한 작별의식을 치러온 그가 홈 관중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고한다. 시적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건만, 한동안은 꽤 긴 여운이 아쉬움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울 듯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할 뿐이다.

● 삼성을 떠난 이승엽의 미래는?
작별을 아쉬워하는 많은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한 가지는 이제 이승엽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신도 진로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승엽은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하다.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은퇴 후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야구선수들도 더러 있다. 이승엽 역시 지난 23년간 각계 스타들과 친분을 나누며 인맥을 넓혀왔다. 포 골프를 무척 즐긴다.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처럼 프로골퍼로 변신을 시도해도 흥미로울 듯하다.
이승엽은 앞으로 자신이 몸담을 영역에 대해서 만큼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야구 외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17시즌 종료 후 나란히 은퇴를 하는 삼성 이승엽(왼쪽)과 NC 이호준이 27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야구인이고, 야구를 통해 얻은 것이 많으니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다. 야구가 싫어서 은퇴하는 것도 아니니 더욱 그렇다"고 얘기했다. 애정과 열정이 식지 않은, '영원한 야구인' 이승엽의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 있을 듯하다.
삼성 팬들은 은퇴 후에도 삼성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승엽을 간절하게 원한다. 삼성에서 지도자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 같은 모습은 적어도 당분간은 보기 힘들 듯하다. 이승엽은 분명한 어조로 "삼성 구단에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팬히 나 때문에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 같은 부담을 주기 싫다"고 말했다.
여러 주변상황을 고려하면 '해설가 이승엽'이 가장 근접한 미래일지 모른다. 실제로 그는 2년 전 11월 '2015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 당시 특별 해설위원으로 중계석에 앉아 간결하면서도 인상 깊은 코멘트로 호평을 받았다.
이승엽은 해설가로의 변신에 대해서도 즉답을

내놓진 않았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심사숙고 해서 결정하겠다. 다만 어떤 일을 하든지 부담감과 불안감은 따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일이나"라며 거듭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이승엽 없는 삼성의 미래는?
삼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위로 시즌을 마치게 됐다. 떠나는 이승엽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성적이다. 후배들과 한 번 더 가을의 전설을 만든 뒤 은퇴했다면 마음이 조금은 더 홀가분했을 법도 하다. '삼성이 부진한 가운데 은퇴하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듯하다'는 말에 그는 "팀과 팬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있다고 해서 팀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며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쉽고 허무하다"고 털어놓았다. '푸른 피의 사나이'로 살아온 15년간 이승엽이 삼성과 함께 일군 영광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2002년 삼성의 첫 한국시리즈 우승이 가장 대표적이다. 8년간의 일본생활을 청산하고 복귀한 첫 해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에도 삼성의 한국시리즈 연속 우승에 기여했다. 개인적으로는 2012년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의 영예 또한 누렸다.
그러나 삼성의 최근 모습은 처참할 정도다. 구단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로 표현할 수 있다. 이승엽은 은퇴를 마치고 더 뛰어도 무방할 만큼 녹슬지 않은 기량을 발휘했지만, 삼성은 무기력하기 그지없었다. 삼성이 이승엽의 빈자리를 메우고 명성에 걸맞은

자리로 돌아갈 날이 언제쯤일지 막막하기만 하다. 또 '이승엽 없는 삼성'을 이끌어 가야 할 후배들의 어깨도 무겁기만 하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승엽이 은퇴를 반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남은 후배들이 힘과 의지를 모아 새로운 활로를 뚫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구장 안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프로의 책무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유명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지켜본다. 그러나 야구장 안에서든 밖에서든 책임감을 갖고 뛰어야 한다.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는 그 누구도 선불리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 힘껏 미래를 열어가다 보면 아쉽게 헤어질 이들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날 밝게 웃으며 굳은 악수를 나누는 삼성과 이승엽을 기대해본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윤동균부터 이승엽까지... '은퇴경기' 선택받은 전설들

(1989년 8월17일) (2017년 10월3일)

스토리 베이스

KBO리그 은퇴식

은퇴식 치른 78명중 은퇴경기 20명도 안돼 한화·SK 12명씩 최다 '은퇴식 전문구단'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만나면 헤어지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이제 곧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다.
NC 이호준은 홈 최종전이 열리는 30일 마산 넥센전에서 은퇴식을 한다. NC 구단 최초 은퇴식이다. 이호준이 시구를 하고, 두 아들이 시타와 시포를 한다. 그러나 NC가 포스트시즌에도 진출해 있어 이호준은 은퇴식 뒤에도 경기를 이어가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삼성 이승엽은 30일 잠실 LG전을 통해 마지막 원정 은퇴투어를 한 뒤 10월 3일 시즌 최종일 대구 넥센전을 통해 은퇴경기를 치른다. 아내 이송정 씨가 시구를 하고, 경기 후 성대한 은퇴식이 펼쳐질 예정이다.
은퇴식은 선수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는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추억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기도 한다. 추억과 역사에 남아 있는 KBO리그 역대 은퇴식을 되돌아본다.

● KBO리그에서 은퇴식을 치른 인물은 78명
이제 프로야구 역사도 겹겹이 쌓이면서 은퇴식을 연 선수 리스트도 수북이 쌓여가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이미 3명이 은퇴식을 치렀다. 지난해를 끝으로 은퇴한 두산 홍성흔이 4월 30일 잠실에서 롯데전에서 팬들에게 작별을 고했고, LG '적토마' 이병규도 지난해 유니폼을 벗은 뒤 7월 9일 잠실 한화전이 끝난 뒤 공식 은퇴식을 했다. 이어 SK 박재상도 9월 9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17년간의 프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인사를 했다.
KBO리그는 지난해까지 총 73명의 은퇴식을 거행했다. 올해 이미 은퇴식을 한 3명과 이호준 이승엽까지 포함하면 78명이 은퇴식을 하게 된다. 윤동균부터 이승엽까지 19년간 78차례 은퇴식이 열린다는 점에서 보면 연평균 4.1명이 은퇴식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 최초의 은퇴식과 은퇴경기 주인공 윤동균의 추억
KBO리그 역대 최초 은퇴식을 연 주인공은 OB 원년 멤버였던 '불곰' 윤동균이었다. 1982년 3월 27일 동대문구장에서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 선수 대표 선서를 했던 그는 1989년 8월 17일 KBO리그 최초의 은퇴식을 했다. 은퇴식만 한 것이 아니라 은퇴경기까지 치렀다. 당당히 4번 지명타자로 선발출

장했다. 타석에서 엉덩이를 찢겨버리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타격폼을 재현한 그는 롯데 선발투수 김시진을 상대로 두 번째 타석까지 침묵하다 세 번째 타석에서 좌중간을 가르는 1타점 2루타를 뽑아내며 대미를 장식했다. OB는 롯데의 양해를 구해 은퇴식을 진행했고, 윤동균은 그의 애창곡 '제비'가 울려 퍼지는 사이 2루에서 덕아웃까지 걸어가며 일렬로 도열한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KBO리그 최초의 은퇴식이 된 이 장면은 아직도 올드팬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후 해태 김성현이 1995년 9월 24일 무등 롯데전을 통해 KBO리그 2호 은퇴경기를 치렀고, 지난해 SK 전병두(10월 8일 인천 삼성전)까지 17명이 은퇴경기와 은퇴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광을 안았다.
슈퍼스타라고 무조건 은퇴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불세출의 투수 최동원과 선동열은 은퇴식 없이 유니폼을 벗었다. 개인사정으로, 구단과 마찰로, 그 밖의 여러 이유로 은퇴식을 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난 스타들도 많다.
● 12명 은퇴식 치른 한화 SK LG '은퇴식 전문구단'
구단별로 집계해보면 최다 은퇴식 구단은

KBO리그 역대 은퇴경기 거행 선수					
순서	일자	선수(소속)	구장	상대	기록
1	1989.8.17	윤동균	잠실	롯데	지명타자=3타수 1안타 1타점
2	1995.9.24	김성현	무등	OB	대타=1타수 무안타
3	1996.9.8	김민호(롯데)	사직	해태	1루수=1타수 무안타
4		한영준(롯데)			우익수=1타수 무안타
5	1996.9.15	정삼홍(LG)	잠실	롯데	선발투수=5이닝 4안타 1실점(패)
6	1999.10.5	김광림(쌍방울)	전주	LG	대타=1타수 1안타
7	2001.5.31	이상근(한화)	대전	롯데	선발투수=0이닝 1타자 1안타
8	2003.9.20	강석천(한화)	대전	KIA	지명타자=1타수 무안타
9	2004.10.5	유지현(LG)	잠실	롯데	유격수=2타수 무안타
10	2005.9.15	장중훈(한화)	대전	KIA	지명타자=2타수 무안타
11	2006.9.24	서용빈(LG)	잠실	두산	1루수=2타수 무안타
12		김정민(LG)			포수=1타수 무안타
13	2009.9.23	송진우(한화)	대전	LG	선발투수=0이닝 1타자 1안타
14	2010.9.3	구대성(한화)	대전	삼성	선발투수=0.1이닝 1타자 0안타
15	2010.9.19	양준혁(삼성)	대구	SK	1루수~우익수~좌익수=4타수 무안타
16	2011.9.18	이승용(넥센)	목동	삼성	1루수=2타수 무안타
17	2016.10.8	전병두(SK)	인천	삼성	선발투수=1.1이닝 1타자 무안타

한화와 SK, LG로 나타났다. 무려 12명씩의 은퇴식을 진행해 '은퇴식 전문구단'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화에서 처음 은퇴식을 연 선수는 1997년 이강돈이었다. 이후 이상근(2001년), 강석천(2003년), 한용덕 장중훈(2005년), 정민철 송진우(2009년), 김민재 구대성 이영우(2010년), 신경현(2013년)에 이어 박찬호(2014년)까지 줄줄이 은퇴식을 거행했다. 은퇴식 노후도 많이 쌓여 다른 구단에서 배워갈 정도다.
SK는 창단 첫해인 2000년 김성래를 시작으로 올해 박재상까지 총 12차례 은퇴식을 치르고 있다. LG는 1990년 백인천 감독의 은퇴식을 치러준 것을 시작으로 올해 이병규까지

12차례 은퇴식을 진행했다.
이어 롯데가 10명(1996년 김민호 한영준~2014년 조성환), 삼성이 7명(2000년 류중일~2017년 이승엽), 해태-KIA가 6명(1995년 김성현~2016년 서재용 최희섭)으로 뒤를 잇고 있다. 두산은 최초 윤동균 이후 1997년 박철순 은퇴식 명장면을 연출했으나 이후 김민호(2004년), 장원진(2009년)에 이어 올해 홍성흔까지 3명이 추가돼 총 5명의 은퇴식만 치렀다. 2008년 창단한 히어로즈의 6명(2009년 정민태~2015년 송지만)보다 적은 숫자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